

한달새 6조3천억 증가 ‘한전發 훈풍’ 11월 지역 상장법인 시총 18% 급증

전남 19% ↑ …시장 하락속 ‘나홀로 강세’
유가증권 ↑ ·코스닥 ↓ 시장별 양극화 뚜렷

11월 국내 증시가 대의 불확실성 영향으로 약세 흐름을 보인 가운데 광주·전남 지역 상장법인들이 대형주를 중심으로 눈에 띄는 호조를 보이며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9일 코스닥시장분부 광주혁신성장센터가 발표한 ‘2025년 11월 광주·전남지역 상장법인 증시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광주·전남 상장법인(38사)의 시가총액은 전월 대비 17.8% (6조 5천899억원) 증가한 4조5천94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시장 시가총액이 3.6% 감소한 것과 대조를 이루는 ‘나홀로 강세’였다.

이러한 지역 증시의 호조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한국전력의 주가 급등에 힘입은 결과다. 한국전력의 시가총액은 한 달 새 6조3천875억원 증가하며 지역 전체 시가총액 증가액의 대부분을 견인했다.

지역별 시가총액 증가율은 전남이 18.6% (6조 3천511억원) 증가하며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고, 광주 역시 8.2% (2천378억원) 증가했다.

지역 상장법인의 성과는 시장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며 양극화 현상을 드러냈다.

지역 상장법인의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은 전월 대비 18.9% (6조6천273억원) 증가한 4조6천943억원을 기록하며 급등했다. 이는 한국전력 외에도 금호타이어나 한전KPS 등 대형주가 강세를 보인 결과로 해석된다. 광주·전남 상장법인의 시가총액이 전체 시장 대비 차지하는 비중은 1.2%로 전월 대비 0.2%p 증가했다.

반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시가총액은 전



코스피, 소폭 하락 4,140대 마감 9일 서울 증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지수 등이 표시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1.30포인트(0.27%) 내린 4,143.55로 장을 마쳤다. 코스닥 지수는 하락 출발 후 장 초반 반등해 전장보다 3.56포인트(0.38%) 오른 931.35에 거래를 끝냈다. 원/달러 환율은 5.4원 오른 1,472.3원이다. /연합뉴스

월 대비 2.0% (384억원) 소폭 감소한 1조9천4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가증권시장 중심으로 성장이 편중됐음을 시사하며, 지역 혁신 기업들이 밀집한 코스닥 부문이 상대적으로 부진했음을 보여준다.

다만, 코스닥 내에서도 박셀바이오(258억원 증가), 그린생명과학(102억원 증가), 에이전트 AI(96억원 증가) 등 일부 종목은 강세를 보였다.

지역 상장법인의 시가총액 증가와 더불어 11월 광주·전남 투자자의 거래대금 역시 증가세를 보였다. 거래대금은 5조2천291억원으로 전월 대비 7.5% (3천665억원) 증가했다. 이는 전체 투자자의 거래대금 증가율(11.1%)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지역 투자자들이 불안한 장세 속에서도 적극 매매에 참여했음을 보여준다.

유가증권시장 거래대금은 5.9% 증가한 3조5천925억원, 코스닥시장 거래대금은 11.3% 증가한 1조6천365억원을 기록했다.

개별 종목별 성과를 살펴보면 시가총액 증가액에서는 단연 한국전력이 6조3천875억원 증가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증가율 측면에서는 금호타이어가 24.2%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며 지역의 선전을 이끌었다.

11월 전체 증시를 살펴보면 코스피는 미국발 AI 업종 고평가 우려 및 미국 12월 금리인하 불확실성 확대 등의 영향으로 원초 하락세를 보였다. 11월말 코스피는 전월 대비 4.4% 감소한 3,926.55로 마감했다. 반면, 코스닥은 1.4% 증가한 912.67로 마감하며 상대적으로 선방했다.

/임재만 기자

GICON, ESG 경영 강화…지역 환경보호 실천 앞장

자원순환 캠페인 등 지역사회 기여 확대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GICON)은 9일 “최근 ESG경영 추진과제의 일환으로 광주 전 일대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GICON은 매년 ESG 실무위원회 운영을 통해 기관의 ESG 전략과제를 수립하고 분기별 성과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광주전 환경정화 활동 역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ESG 실천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기관 차원의 연간 추진과제 중 하나로 마련됐다.

올해 GICON은 ▲건물 온실가스 감축 컨설팅 ▲기관 운영 전반의 친환경 전환 검토 ▲입주기업과 임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친환경 캠페인 운영 등 다양한 ESG 경영 활동을 추진해 왔다. 특히 12월 한 달간은 전 직원이 참여하는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 캠페인’을 진행하며 사무공간 내 플라스틱 사용 최소화를 위한 행동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이달 중순에는 광주문화기관협의회와의 협력사업으로 폐전자기기를 수거해 자원순환 및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하는 미디어 자원순환 캠페인 ‘미사이클 시즌5’를 실시할 예정이다. 더불어 연말을 맞아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물품 기부 활동 등 시민과 함께하는 사회적 가치 확산 프로그램도 연계 추진한다.

GICON은 광주시 ICT·콘텐츠산업을 대표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매년 ESG경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관의 지속가능성과 ESG 가치 확산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발굴·실행하고 있다.

이경주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광주 전 정화 활동은 단순한 환경보호를 넘어 기관과 시민이 함께 지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가자는 의미 있는 실천”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ESG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반도체·자동차 등 실적 상승 대형주 쏠림

주간 증시 전망



김 경 준

유진투자증권 광주 WM센터 차장

지난 한 주간(12월3일-12월9일)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는 3.6%, 코스닥은 0.3%가량 상승했다. 해당 기간 외국인인 코스피 4천억원, 코스닥은 1천억원 순매수했고 기관은 코스피를 1조8천억원 순매수, 코스닥은 4천억원 순매도했다. 아직 높은 원 달러 환율 속 외국인인 적극적인 매수를 못하고 있고, 기관투자자들은 2주 연속 코스피를 대량 순매수하며 증시를 끌어올리고 있다.

4분기 코스피 영업이익은 78조3천억원으로 추정되며 전년 동기 대비 64%가량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다수 섹터의 이익 추정치가 상향됐다. 특히 반도체, 건강관리, IT가전, 에너지, 화학, 화장품 업종 상황세가 컸고 디스플레이, 건설 건축 업종은 일부 하향 조정됐다.(출처: 유진투자증권 리서치)

이익 모델이 받쳐주고 있기에 기관 투자자들이 편하게 매수하고 있는 시기인 것으로 보이고 자동차, 반도체, 로봇, 2차 전지부터 조선 업종까지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다.

이번 주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이슈는 12월 9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되는 미 FOMC 정책 회의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시장은 25bp 금리 인하 확률을 80%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이번 회의에서 단순 금리 조정 이상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FOMC에서는 매파적 인하라는 역설적인 정책 조화를 통해 노동 시장과 수요 둔화를 방어하는 동시에 인플레이션 재점화 우려와 재정지출 확대를 대비하기 위한 메시지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2025년 금리 인하 시나리오인 점도 표는 9월 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2025년 최대 두 차례의 25bp 금리 인하만을 시사하는 경로가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

금리 인하의 당위성을 찾아보면 고용시장 둔화를 뺄 수 있다. 민간 부문의 고용 지표는 노동시장이 연준의 예상보다 빠르게 냉각되고 있

음을 경고하고 있다.

특히 11월 ADP 민간 고용 보고서는 시장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고 3만 2천명의 고용 감소를 기록했다. 실업률 또한 4.4% 수준에서 고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이번 25bp 금리 인하는 최소한 보험성 인하 성격의 당위성은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파월 연준의장의 임기는 내년 5월로 임기 내내 트럼프와 논쟁을 벌였던 것을 생각하면 교체는 확실시되고 있다. 유력한 후보로는 케빈 해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이 거론되고 있는데, 트럼프 1기부터 2기 현재까지 트럼프 경제 브레인으로 오랜 기간 일을 함께 한 핵심 경제 참모다. 내년 5월부터는 미국 정부와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연준을 보게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우호적인 금리 환경 조성과 유동성 공급으로 증시에 호재이겠지만, 결국 인플레이가 뒤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인지가 내년 하반기와 내년 증시 행방에 핵심이 될 것이다.

국내 증시는 11월 자금시장 경색과 엔 캐리 청산 우려로 시장이 유동성 요인에 좌우되면서 원자력, ESS, 반도체 소부장 등 주도주들이 조정을 받았다. 현재는 12월 1일자로 연준의 QT(양적 긴축)가 종료됐고 한미 금리차 축소 전망, 한국 내년 GDP 전망 상황 등으로 반등하고 있는 구간이며 연말연초 외국인들의 수급이 바닥을 통과해 다시 복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번 상승장을 온전히 누릴 수 있을까? 올해 코스피 대형주 위주의 상승장이 지속됐었고 지난달부터 정부의 코스닥 부양 정책 기대감에 코스닥이 최근 키 맞추기를 조금 진행하는 모습이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인 과거와 같이 코스피를 주로 매수할 것인지 아니면 코스닥 바이오 및 로봇 업종 등 금리 인하기에 유리한 성장주로 배팅할 것인지 고민해 본다면, 필자는 이번에도 코스피가 우위에 있다고 판단한다. 그 이유는 첫째로 실질적으로 이익 전망치가 지속 상승되고 있고 돈을 버는 곳이 반도체·자동차 등 대형주이다.

바이오와 로봇 등의 성장 섹터의 매력도 있겠지만 외국인들이 큰 자금을 배팅하기에는 이익의 체력이 아직 약해 보이고 코스닥으로 이례적인 외국인 수급이 유입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제한적으로 보인다. 즉각적인 실적 상승이 뒷받침되는 반도체, 자동차, 조선, 에너지 섹터 대형주로의 쏠림이 다시금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그 외 특정 섹터로 중일 관계 악화로 국내 카지노·호텔 업계의 지속 수혜가 예상된다.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린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Green Premium Vera Gold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 ■소비자상담실 : 080-234-6588

그린알로에